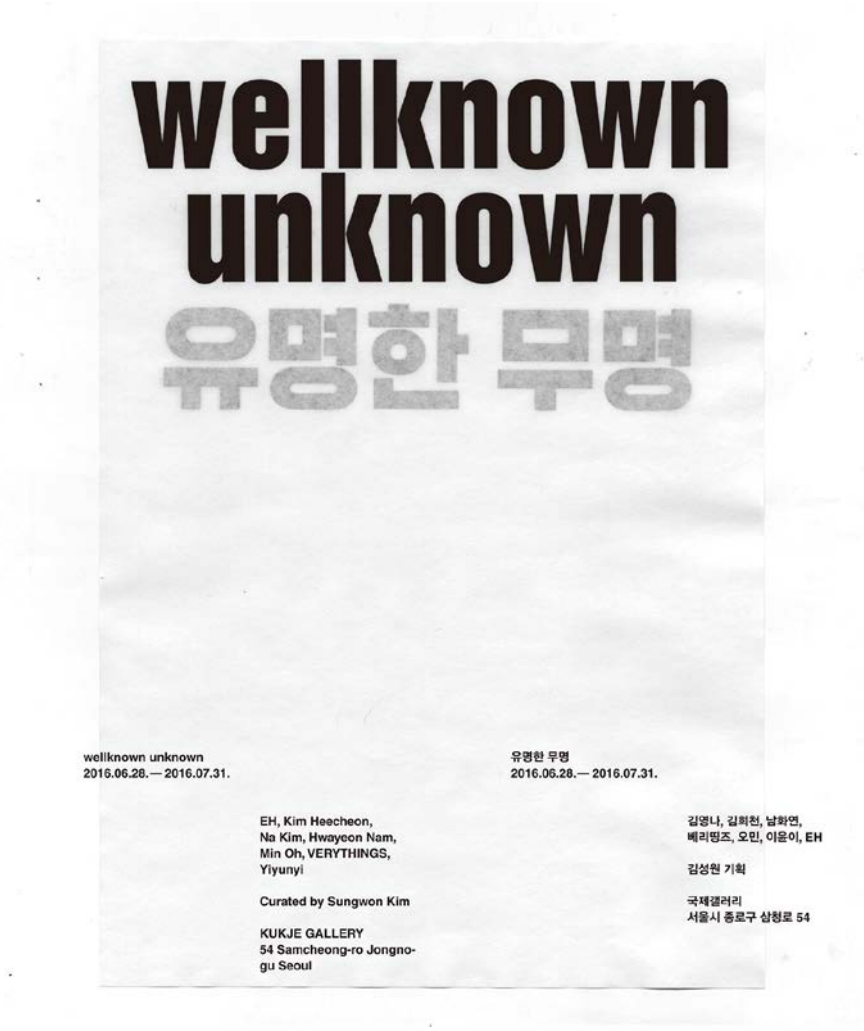
# KUKJE GALLERY

## PRESS RELEASE

## 국제갤러리, 《유명한 무명 wellknown unknown》 그룹전 개최

기자간담회: 2016 년 6 월 28 일 (화) 오전 11 시 국제갤러리 2 관
전시기간: 2016 년 6 월 28 일 – 2016 년 7 월 31 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1, 2 관 (K1, K2)
초빙큐레이터: 김성원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참여작가: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띵즈, 오민, 이윤이, EH




*우리 시대는 유명과 무명으로 구분된다. 알려지기 위해 초고속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유명한 무명》전은 오늘날 젊은 작가들에게 진정한 유명을 위해 '무명'과 '사라짐'의 전략을 제안해 본다.*

큐레이터 김성원

국제갤러리는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험적인 태도와 장르를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무장한 동시대미술의 촉망 받는 작가들의 그룹전《유명한 무명 wellknown unknown》을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2013년《기울어진 각운들》개최 이래 발전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자 초빙큐레이터의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김성원 큐레이터 기획의 국내 전도유망한 7인의 작가들 -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띵즈, 오민, 이윤이, EH의 신작 및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

《유명한 무명》전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작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세대에 질문들을 제시한다. 이 물음은 출현과 소멸, 등장과 은둔, 유명과 무명의 가치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현대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유명인과 무명인에 대한 구분에서 출발한다. 또한, 유명해지지 못하면 사라지고 마는 일종의 강박에 가까운 현실과 유명을 향해 질주하는 세태를 반추한다. 나아가 동시에 알려지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 세대의 딜레마를 고찰한다.

그 예로,『속도와 정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사상가 폴 비릴리오는 한 인터뷰에서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를 '유명한 무명'으로 꼽은 바 있다. 흥미롭게도 카프카는 은둔과 사라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문학과 삶이 알려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자신의 작업을 불태워 달라고 유언하였으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주목 받게 한 것이다. 이러한 무명하고자 한 시도가 오히려 작가와 작품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것이 대중에게 회자되며 실체를 인지하기도 전에 소멸해버리는 현상을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유명'과 '무명'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유명한 무명》전에 초대된 7인의 작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들을 통해 바라본 입체적인 현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 설치, 디자인, 사진 작업 등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서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끌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연결되는 한편, 개별적인 작가들의 고유한 배경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구분을 통해 '유명'과 '무명'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가지는 다각적인 개념들, 즉 불확실성, 연약함, 변화 가능성과 동질화, 획일화에 대한 정밀하고 미묘한 저항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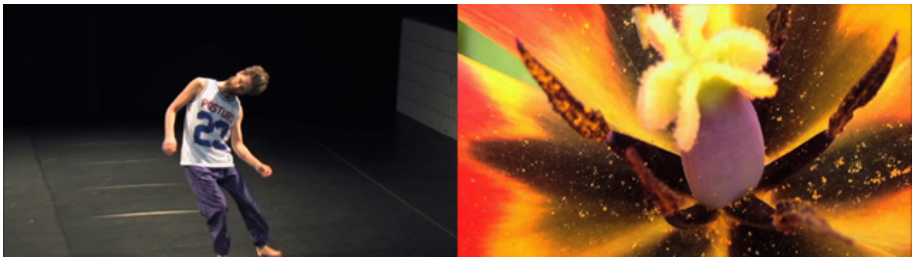
《유명한 무명》전을 기획한 **김성원 큐레이터**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아트선재센터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큐레이터로 재직 이후 2006년부터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아뜰리에 에르메스, 문화역서울 284에서 등 국내의 대표 미술 기관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획전시들을 선보였다. 주요 전시 경력으로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쿤스트페어라인에서 국제전《Parallel Life》를 공동 기획, 2010년 국제갤러리《우회전략(Oblique Strategies)》그룹전 등 다수가 있다.

*SET v.2: Cover, p. 12, p. 9, p. 46, p. 44,* 2016
벽면에 페인팅,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디자인과 미술을 구분하지 않으며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나**는 순수미술의 형식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요소들을 보여주는 작가로, 2013년 미술가가 운영하는 공간인 <커먼센터>의 창립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그룹전에는 2006년부터의 작업을 하나로 엮어 2015년 뉴욕 개인전에서 선보인 <SET>의 연작 <SET v.4>(2016)을 K1와 K2 1층 공간에 설치한다. <SET>는 해당 개인전 이전에 출판된 동명의 도록을 전시 공간에 설치한 월페인팅 작품으로, 과거의 커미션 디자인과 개인 작품들과 자신이 참여했거나 기획한 전시 이미지들을 모아 재조합, 재배열하며 제작 연도, 매체, 커미션 등에 관계 없이 각 개체에서 발견되는 시각 요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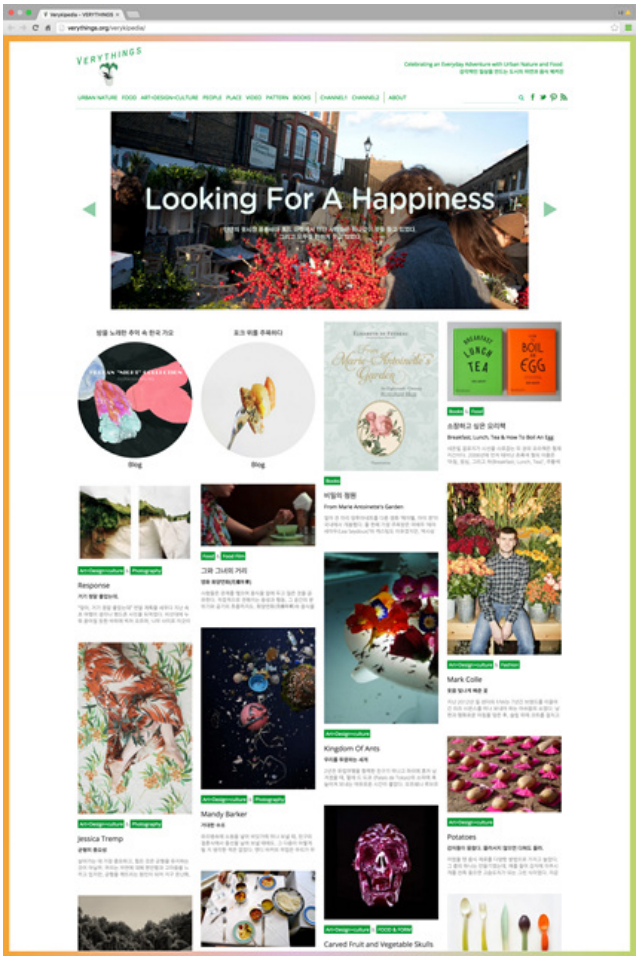
*/Savior,* 2016
스크린세이버, 4 시간 5 분 52 초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잠정적으로 자신의 전공인 건축을 접고 자신의 경험과 시각적 도구만으로 도시를 섭렵하는 **김희천**은 독특한 시선으로 현실을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인다. </Savior>(2016)은 2015 년 6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작가가 매일 직접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1600 개의 동영상들을 스크린세이버로 만든 작업이다. 이 작품은 '현실세계를 스크린 속으로 백업하는 것'에 대한 비디오작업 트릴로지 가운데 두 번째 작업인 <Soulseek/Pegging/Air-twerking>(2015)의 스크린세이버로 사용되어 작품 사이에 불쑥 "/(슬래시)"를 치고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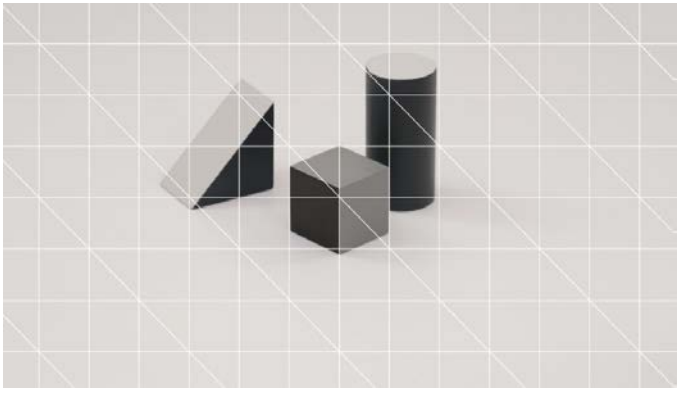
욕망의 식물, 2015
비디오, 8 분 23 초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2015년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전시에 비디오 작업으로 참여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남화연**은 이번 그룹전에서 자신의 전공이었으나 대학 졸업 이후 한번도 선보인 바 없었던 조각 작업을 출품한다. 작가는 작년 5월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기형의 데이지 사진이 화제가 된 사건과 식물이 자연적으로 기형화되는 '대화현상 (fasciastion)'이라는 개념에 착안한다.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개념과 아름다움에 의문을 품고, 세포분열의 오류로 탄생된 돌연변이로서 포스트 네이처와 포스트 휴먼 시대를 예고하는 듯한 흑백의 거대한 백합조각 <White Madonna>(2016)와 <Black Madonna>(2016)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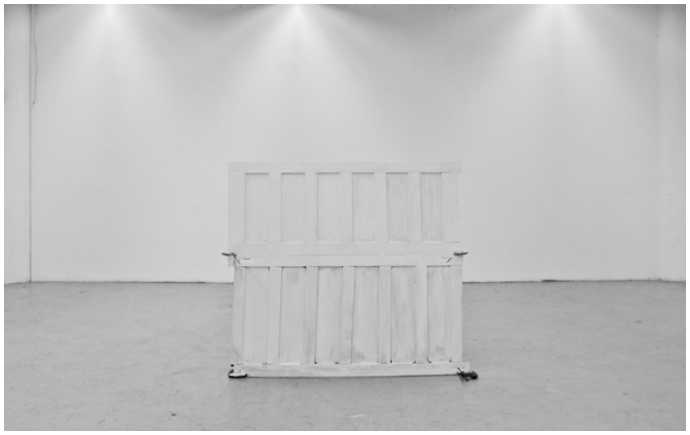

*VERYKIPEDIA: VERY NEW NATURE,* 2016
혼합 매체 설치,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어번네이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시대적 트렌드에 대한 예리한 비평을 서슴지 않는 크리에이터스 그룹 베리띵즈는 '모던 유토피아 리빙' 컨셉을 기본 철학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과 '음식'을 흥미로운 시점으로 실험하며 발전시킨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 전세계에 흐르고 있는 도시자연에 관한 전문 컨텐츠부터 자연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패션, 리빙, 디자인, 그리고 아트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가치들을 한 자리에 모아 폭넓은 아카이빙을 표방하는 <베리키피디아 (VERYKIPEDIA)>(2016)를 소개한다. 2013 년 온라인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근 2 년동안 전시,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 지속되어왔으며,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선정한 정보들을 국제갤러리 2 관에 오브제로 설치함으로써 동시대적인 '도시자연 문화'와 '식물을 둘러싼 이야기'를 풀어낸다.



*ABA Video Score*, 2016
싱글 채널 HD (1080p)비디오, 스테레오 오디오, 2 분 35 초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디자인과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독특한 시각예술을 제안하는 **오민**은 라프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 번 1 악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관한 신작 <ABA Video Score>(2016)와 <ABA Diagram>(2016)을 선보인다. 제목 ABA 는 '소나타 형식'를 의미하며 <ABA> 작업 구조의 기본 골격이 된다. 기하학적 도형으로 전환된 청각정보들을 다루는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음악 형식과 특정 악곡의 스터디를 기반으로 그 형식을 다른 시간 매체에 차용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이렇게 작가는 청각적 '재연'과 시각적 '재현'에 관한 질문을 데이터 리터러시와 추상미술의 절묘한 결합으로 풀어낸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통제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열망과 일상적인 작은 절차가 하나의 의식이 되는 과정을 다룬 두 점의 영상작업 <Daughter>(2011)와 <Banana>(2011)가 함께 소개되어 오민의 작업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재생 시간, 2011-2016
단채널 비디오 (흑백, 스테레오, 8 분 9 초, 반복재생), 가벽에 하모니움 가변설치, 이동식 수레에 카펫, 디지털 프린트 (3 장, 495 x 350 cm),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문학을 전공했지만 이미지의 매력에 빠져 시각예술가의 길을 택한 **이윤이**는 자신의 사/공적인 기억과 이야기들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아 사운드와 이미지, 텍스트를 혼합한 영상과 설치로 구현해왔다. 이번 단체전에서는 <한편...자식!>(2011)과 <재생 시간>(2011-2016)이라는 두 점의 영상작업과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재생시간>은 우연하게 선물 받은 목재 하모니움과 거기에 얽힌 전시 이야기를 담백하고 정겹게 풀어 낸 영상 작업이다. 16mm 흑백유성필름으로 촬영한 <한편...자식!>은 작가가 1920 년대 슬랩스틱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버스터 키튼의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미국 무성영화 시대의 흑백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를 재현하며 그 시대의 감수성과 정서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Model Line*, 2012-2013
디지털 슬라이드 프로젝션,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건축사진가 **EH(김경태)**는 라인, 면, 조명만으로 모든 입체구조물을 평면화한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모텔 건물의 선을 장식하는 조명을 포착한 시리즈 작업 <Model Line>(2012-2013)에서 모텔은 '도면화된 이미지'처럼 보이며,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이 아닌 정지된 영상으로 보여준다. 또한 수돗물을 끓이고 남은 침전물, 석회층이 형성한 이미지를 포착한 시리즈 사진작업 <Printed Matter HW>(2016), 마치 낮에 찍은 것 같은 건물 야경 이미지 작업 <Lighting Composition 1>(2012-2013)의 총 다섯 점의 사진작품을 선보인다.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Communications Assistant Director Sabinne Cheon (82-2-3210-9821, 82-10-4439-0056 / E-mail. sabinne@kukjegallery.com)**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 kukjegallery PW: kukje
경로: webhard.co.kr > 내리기전용 > 2016 유명한 무명 그룹전